

굽이굽이 물길따라 풍광과 전설을 더듬다

한국관광공사 추천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울쟁이 국수



긴 세월 정선 사람들은 서쪽 성마령쪽의 비행기재를 넘어 골 깊은 태백산맥을 오갔다. 공중에 뜬 것처럼 아찔하여 높은 이름의 이재를 넘으면 아리랑의 고장 정선의 이야기가 서리서리 펼쳐진다.

고단한 삶 만큼 '슬픈 음식' 울쟁이 국수 뱃사공 전해주는 사랑이야기 심금 울려

하늘은 한 없이 푸르고 밭길로 펼쳐지는 풍경에는 어지럽증이 이는 비행기재 넘어 한반도의 등뼈로 일컬어지는 태백산맥의 천 미터가 넘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있는 정선. 앞산과 뒷산을 이어 빨래줄을 걸었다는 강원도 정선, 그 곳으로 들어가려면 이처럼 험준한 고개를 넘어야한다.

그나마 지세가 수월한 서쪽 성마령쪽 비행기재는 긴 세월 정선 사람들이 오갔던 고개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듯 공중에 둥둥 뜬 것처럼 아슬아슬 어질어질하여 비행기재라는 이름이 붙었다. 재를 넘으면 '아리랑의 고장 정선입니다'는 이정표가 반긴다. 골 깊은 정선 땅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가장 먼저 밭길 닿는 곳은 아우라지다. 뱃전에 부딪치는 물살처럼 끝없이 구수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우라지 뱃사공이 전해주는 사랑이야기가 여기 있다.

옛날엔날 여량리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다. 강 건너 유천리에는 믿음직한 총각이 살았다.

물레물레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싸리골로 동박꽃 구경을 가기로 약속했다. 현대 갑작스런 홍수로 배가 뜨지 못하게 되니 두 연인은 에타는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굴렀다한다. 그때 나무터의 소리 잘하고 장구도 잘 치는 지장구 아저씨가 두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랫가락에 담아 주었다. "아우라지 뱃사공 아 배 좀 건네주게 / 싸리골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 / 떨어진 동박은 낙엽이나 쌓이지 / 잠시 잠깐 남 그리워 나는 못살겠네." 애담은 돌의 이야기는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정선 아리랑의 '애정편'이 되었다.

정선장터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울쟁이국수 이야기도 곁들여 준다. 해가 뜨자마자 넘어가 버린다는 정선은 강원도 산골 중에서도 두메산골로 들관이라 부를 만한 경치가 없이 손바닥만 한 평평기가 있을 뿐이다. 하여 산비탈에 매달려 먹을 것을 해결하

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으니 여량리 처녀 또한 마찬가지.

매일 아침 여량리 처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말린 옥수수를 물에 불렸다. 불린 옥수수를 맷돌에 넣고 물을 한 수저씩 넣어 주며 곱게 간 다음 체에 걸러 건더기를 걸러낸 후 가마솥에 붓고 눌러 붙지 않도록 저어주면서 뽕근히 끓였다. 그러면 묵을 쫓듯 걸쭉해지는데 박을 쪄고 만든 바가지에 구멍을 송송 뚫고 이것을 부은 후 숟가락으로 비비면 구멍을 지나 걸쭉한 덩어리가 푹푹 떨어진다. 힘이 많이 들어간 첫 부분은 굵고 통통하지만 끝부분은 가늘고 힘없는 모양으로 떨어지니 마치 울쟁이 형상이다. 양념간장을 얹어 한 그릇 후루룩 먹으면 씹을 것도 없이 묵구멍으로 술술 넘어가며 울쟁이만큼 금세 배가 불뚱해진다.

그러나 맷돌질을 하고 가마솥에 끓이고 바가지에 비비고 하는 작업은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힘든 노동이니 울쟁이국수 한 그릇에 담긴 삶의 무게는 맛만큼 밍밍하고 맵그럽진 않다. 적박하고 고단한 맛이며 돌아서면 배가 고프곤 슬픈 음식이다.

유천 총각은 산으로 들로 다니며 나무를 하고 곡취, 참나물, 어수리를 비롯해 두릅을 따고 엄나무 순을 뜯었다. 이 중 곤드레 나물은 고산에서 자라는 야생나물로 봄이 무르익는 오월쯤 따다가 싹 싸먹고 무쳐 먹고 말려서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이면 밥을 해 먹었다. 지금이야 웰빙식품으로 인기지만 그때는 주린 배를 늘리기 위해 밥에 넣었던 눈물겨운 나물일 뿐이었다. 이리 저리 엮긴 모습 때문에 곤드레라 이름을 얻었지만 지금은 취할 정도로 맛이 좋다하여 곤드레만드레의 앞부분을 언급하니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적박한 땅에서 살던 이들의 사랑 또한 적박하기 이를 데 없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 뿐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꽃같이 예쁜 여량리 처녀를 색시로 맞고 싶었던 유천리 총각은 뱃군이 되기로 결심한다. 돌이 만나 시간을 보내던 아우라

지는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 조양강이 되니 '아침 햇빛'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이 강은 한강의 대표 원류 중 하나이자 뱃목의 출발지이기도 했다. 골 깊은 정선 땅에 질 좋은 나무가 많으니 대원군 또한 경복궁 중건시 필요한 목재를 남한강 물길을 이용해 조달했다. 소나무를 새끼줄로 이어 뱃목을 만들고 여기에 뱃군이라 불리는 뱃사공이 타고 1천리 남한강 물길을 내려가면 한양의 광나루나 마포나루에 도착했다.

하지만 물살이 험하기로 유명한 동강의 동서여울이나 황새여울 등에서 뱃목이 뒤집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으니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양에 도착하면 뱃목을 팔아 한 톨 천 냥길 수 있었으니 이 때돈을 벌기위해 각지에서 뱃군들이 모여들었다. 뱃군이 머물던 주막은 밤만 되면 아리리가 울려 퍼졌다.

유천리 총각도 그렇게 떠났지만 하루 이틀.. 열흘 보름..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으니 아우라지 강가에는 총각을 기다리는 여량리 처녀의 동상이 서 있고 바로 옆 여송정에는 그들의 에타는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햇살 가득한 여송정 난간에 걸터앉으면 바람결에 노랫가락이 들려온다. "눈이 울려나 비가 울려나 여수장마 질러나 /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 든다 /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요 /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

아우라지로 가는 반점재에 올라 굽어보면 유천리 총각이 뱃목을 타고 굽이를 돌았을 문곡과 송우리 사이의 굽은 월천 물길에 보이고 병방치에 오르면 그 물줄기는 더욱 심하게 아리리 가락처럼 휘어져있다. 그렇게 정선 아리랑은 유천리 총각이 힘겹게 따오던 곤드레 나물처럼 청청 사연이 엉켜있으며, 여량리 처녀가 만들던 울쟁이국수처럼 눈물이 푹푹 떨어지고, 비행기재 고개걸처럼 어질어질 애잔한 가락이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구슬픈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가 흐르는 아우라지, 뱃사공의 옛 이야기가 풀어져 나오는 나룻배를 타고 아우라지를 건너본다.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보청기
3세계기스타·세계보청기